

# 강원도 춘천 친환경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'봄내살림'

2011. 9. 1. 대표이사 이진천

봄내 = 春川의 옛 이름  
인구 27만 (농가 4만)  
도농복합도시  
강원도청 소재지  
수도권 인접



# '봄내살림'이 걸어온 길

## 2008년 12월

“춘천생협이 담당해 온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을  
농민조직,시민사회와 함께 특화시키자”

- (예비)사회적기업 <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>

- 6개 단체 컨소시엄

- 1) 춘천생협 : 15년 역사의 지역생협
- 2) 춘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: 80농가. 조직 3년차
- 3) 춘천시민연대 (지역의제) / 춘천여성민우회 (여성계)  
춘천노동복지센터 (노동계) / 한림대산학협력단 (학계)

-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16명 배정

거리만 가까운 이웃이 아닌  
마음도 가까워지는 이웃이  
되고 싶습니다.

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단

“충청친환경농산물  
유통사업단”이 시작합니다.



충청 친환경 로컬푸드 사회적기업

보내살림

보내살림

2009년 4월,  
새로운 이름 및 로고 완성

# '봄내살림'이 걸어온 길 - 1

## 2009년 - 사업 모색기

"춘천생협이 담당해 온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을  
농민조직, 시민사회와 함께 특화시키자"

- **꾸러미사업 <생명밥상> 시작 (3월)**
  - : 최초 40가구 (2008년 한 시민단체의 CSA 회원)
  - : 연말 80가구
- **논두렁축제 (생산자-소비자 추수축제)**
- **무항생제 유정란 자체 생산**
- **어린이집, 복지시설 19개소**  
**친환경농산물(쌀 중심) 일부 공급**
- **다문화카페 / 반찬사업 / 각종 선진지 견학**



춘천시 친환경농업계 협조  
- 회수용 배송박스 제작

봄내살림 꾸러미는  
전량 춘천 시내 회원  
직접 트럭 배송



## 논두렁 축제



# ‘봄내살림’이 걸어온 길 - 2

## 2010년 - 사업 초창기

“외부 지원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자,  
스스로 능력을 갖추자”

### - 꾸러미사업 <생명밥상> 지속 (2년차)

- : 최고 140가구 (2010년 80가구)
- : 춘천시민 신규회원 증가 (방송, 입소문)

### - 친환경학교급식사업 본격화

- : 읍면지역 초중등학교 18개소 친환경쌀 공급
- : 기존 급식업체 기피 면지역 소규모 학교 급식 전품목 배송

### - 친환경식당, 친환경학교급식 주력으로 전환 모색



춘천 친환경 로컬푸드 사회적기업

# 보내 는 살림



- 식품안전교육
- 친환경농산물 사용 어린이집 현판 달기
- 주말 농장
- 소비자 체험



- 로컬푸드 토론회
- 국공립 어린이집  
협약식





- 친환경무상급식  
촉구 기자회견
- 시청 마당  
직거래장터



## ‘봄내살림’이 걸어온 길 - 3

### 2011년 - 사업 집중화 시기

“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 우물을 파자”

- 모기업(춘천생협)에서 분리독립. 주식회사 설립.  
사회적기업 인증. 강원도 생산자 네트워크 다각화
- 꾸러미사업 <생명밥상> 지속 (3년차)
  - : 평균 130가구 (2010년 대비 정체)
  - : 의미에 비해 사업 효율성의 문제
- 친환경학교급식사업 확대
  - :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 정책 시행의 확대
  - : 춘천시내 초중고등학교 40개소 친환경쌀 공급
  - : 기피 면지역 및 소규모 학교 급식 전품목 배송 확대
- 친환경식당 폐업, 친환경학교급식 주력으로 전환

# **‘봄내살림’이 바라보는 CSA**

## **문제의식 1**

로컬푸드사업은  
신뢰의 확장이며  
먹거리 관계망의 집약이다.

-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의 사회화, 시스템화  
: 사실은 기존 생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.
- 소비자가 함께 있는 춘천이라면 가능하다.  
: 수도권화 되고 있는 춘천의 역설

# ‘봄내살림’ 이 바라보는 CSA

## 문제의식 2

‘봄내살림’은  
사회적기업 경영과 로컬푸드 운동의  
사이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운명

- 시민(농민,소비자)들의 협동경제 실험체  
: 투자자가 없으므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.
- 적절한 규모와 경영으로 수렴되는 운동  
: 지속가능하기 위한 엄밀함의 요구
- ‘봄내살림’은 신뢰의 브랜드가 될 것인가?  
: 허구가 아닌 실체의 이미지 메이킹

# '봄내살림'이 바라보는 CSA

## 문제의식 3

꾸러미사업은  
지역 내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며  
꾸준한 실험이다.

- 적정 가격/비용 산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.
  - : 데이터가 공개된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란 있는가?
  - : 농가소득 보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허구일 뿐.
- 농민, 유통, 소비자 3자의 공동 실험이다.
  - : 대안경제 실험일 뿐이다. 과도한 의미부여는 하지 않는다.

# '봄내살림'이 바라보는 CSA

## 문제의식 4

### 봄내살림 꾸러미사업의 차별적 특징

- 1) 택배 배송을 하지 않는다. 춘천 시내만 직배송 한다.
- 2) 300가구 (하루 60가구) 상시 배송을 최대치로 잡는다.
- 3) 기본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삼지 않는다.
- 4) 소비자 기호를 고려하며, 유통(봄내살림)이 주도한다.
  - 생산자회가 따로 없다. 네트워크만 있을 뿐이다.
- 5) 꾸러미는 생활 속의 실천이며 교육이다. 경험이 중요하다.
- 6) 친환경로컬푸드 > 로컬푸드 > 친환경푸드

# '봄내살림'이 바라보는 CSA

## 문제의식 5

지역에서 CSA를 고민한다면,  
공공급식 시장의 조절이 열쇠다.

- '학교급식'부터 계획생산-유통-소비의 구조화
  - : 책임과 권한의 분산.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.
  - : 여기서도 실패하면, '지역식량체계'니 '국가식량체계'니 어떤 경험이 쌓여 기약할 수 있을까?
- 반드시 천천히 가야만 한다.
  - : 턱없는 조급증은 정치적 의제 독점과 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될 일마저 망치고 있다.

# '봄내살림'이 바라보는 CSA

## 문제의식 6

CSA에도 철학이 있다.  
반문하며 실천해야 옳다.

- 공동체든 국가든, 왜? 또? 농업을 지원해야 하나?
- 어디까지 대안이 될 수 있나? 유행인가?
- 실험은 결국 실험으로 그칠 것인가?
- 정치와 행정은 정말 공부 안 할 것인가?

: CSA (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)는

ASC (농업이 먹여 살리는 공동체)의 다른 이름.

: 지역이든 국가든 공동체로 살고 싶으면, 성찰해야 할 것!

: 실질적인 경험과 데이터 축적은 철학을 강화시킬 것.



# '봄내살림' Vision 2011

- 2011.1.21. 선포

## 1. Local Food

**: 춘천 로컬푸드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.**

먹을거리를 우습게 아는 세상입니다. 그 먹을거리를 위해 땀 흘리는 농민들의 수고를 모르는 시대입니다.

**봄내살림은 "내가 먹는 것이 곧 나"라는 단순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.**

밥상 하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. 너무 멀리서 오고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옵니다. 누가 농사지은 것을 먹는지 모릅니다. 이 시스템이 극복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

**봄내살림은 Global Food System과 수도권 의존형 Food System에 매몰되지는 않겠습니다.**

봄내살림은 춘천의 기업입니다.

**대안적인 춘천 Local Food System 정착을 위해 한땀한땀 정성껏 수를 놓겠습니다.**

# '봄내살림' Vision 2011

- 2011.1.21. 선포



## 2. Local Cooperative Economy

: 협동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.

경쟁은 필요합니다. 그러나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은 답이 아닙니다. 제3의 길도 있습니다. 사회적기업은 그 길을 따라 걷는 기업입니다.)

**호혜와 연대를 기본으로 경쟁에 앞서 협동하는**

사회적경제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. 봄내살림 내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

**생산자, 회원 그리고 임직원들이 소통하며 협동하는 사회적기업다운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.**

이윤 창출은 목적도 수단도 적정해야 합니다. 그것이 협동의 씨앗이 됩니다.

**적정한 이윤의 창출과 지역내 재투자를 통해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.**



# '봄내살림' Vision 2011

- 2011.1.21. 선포

## 3. Local Community

: 농도상생(農都相生)의 미래를 꿈꿉니다.

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면서 농업과 농촌, 농민을 객체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겠습니다.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

**춘천의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,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유통의 물꼬를 트겠습니다.**

농도상생, 우리 춘천에서는 가능합니다. 봄내살림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.

**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 춘천의 내일을 위해 중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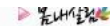
봄내살림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잊지 않겠습니다.

**農者天下之大本. 농산물 유통의 기반은 천하의 큰 뿌리 농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**

# www.local-food.kr



HOME



회원직거래 · 학교급식 · 친환경 유통 · 교육 홍보사업

Environment Friendly

TODAY / 3  
TOTAL / 255



안녕하세요! 봄내살림은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.

춘천 친환경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봄내살림은

- 춘천의 먹을거리 안전을 실현시킵니다.
- 생명밥상, 착한밥상! 농민과 소비자가 교류합니다.
-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확대를 지향합니다.
- 지역순환경계를 활성화 시킵니다.

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봄내살림  
(사회적기업 인증번호: 제2010-207호)

주소: 춘천시 신동 341번지(200-240) • 전화: 033) 252-6294, 070-8292-6294  
FAX: 033)242-6294 • E-mail: bomnaelife@hanmail.net



강원도 춘천  
친환경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 
'봄내살림'

10년 뒤에, 이 자리에서  
한결같은 마음과 더 성장한 모습으로  
다시 만나겠습니다.

고맙습니다.

